

| 노사정이 바라본 합의의 의미 |

역사적 합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본부장 / 상무이사

- 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 위원
- 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
- 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지난 4월 23일 주요 경제사회주체가 노사정 합의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모습을 만든 것은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5월 28일 입법을 통해 출범하게 되었다. 노사정과 국회가 함께 낳은 '소중한 자식'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201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1월 31일 노사정 주체는 제1차 대표자회의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로 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참여주체별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향, 개편 필요성, 참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여주체들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 참여주체, 기능, 의제 등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 주요 노사정 주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논의과정 및 합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를 온전하게 복원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참여주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상시 설치토록 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참여주체의 확대나 다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대표성 문제나 논의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경제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과 동시에 시련을 맞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참여주체에 따라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어야 하듯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자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볼모가 된다면 과거의 아픔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겠다.

지금 한국 사회는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해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나온 과거가 남겨놓은 미제(未濟) 유산인 ‘사회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내다볼 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책이 놓여 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중장년 고용불안, 저조한 여성 경제참가율, 과도한 자영업, 미비한 사회안전망, 학력과 교육열 과잉, 중소기업과 지방의 더딘 발전 등이 이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노사정 주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다. 난마를 풀 궤도를 요구하기는 아직 어렵다. 우선 쉬운 의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해나감으로써 튼튼하게 오래 걸을 수 있는 신뢰의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인내와 내 것을 내려놓는 양보가 필수로 요구될 것이다.